

02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

■ 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Oxford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Macmillan, 2000)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1999, 공저)

『이승만과 김정일 그리고 한반도 냉전』(2006) 등

Contents

- 1 들어가는 글
- 2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반러의식
- 3 임시정부활동과 반공이념의 형성
- 4 해방 이후 반공이념의 강화와 단정론
5.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6. 나오는 글

본고는 이승만의 반공노선을 전통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의 반러 의식이 형성되었던 과정 및 반일 의식 및 반공노선으로 변천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 의식으로서 형성되었던 이승만의 반러 의식은 국제 정치를 약육강식의 관계로 보는 현실주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의 독립을 강대국 간 권력 투쟁의 부산물로 이해했던 그의 외교론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의 국권 상실 이후 이승만은 현실주의적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친미, 반일의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친미, 반일, 반소 의식은 대미 임시정부 승인 운동 및 해방 이후 신탁 반대 운동 과정에서 반공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소련 공산주의의 남한 침투를 막기 위한 현실주의적 계산의 결과 이승만은 단정론을 주장하였고,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북진통일론 역시 국내 정치적 지지 세력 결집과 국제 정치적 대미 동맹 강화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이승만, 반공노선, 반러 의식, 현실주의

1. 들어가는 글

이승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승만은 반공을 앞세우며 통일국가 건설을 도모하던 해방정국에서 대내외의 비판을 감수하고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분단국가 수립 이후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북진통일론을 외쳤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의 반공의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종전에 반발하며 반휴전운동을 펼쳤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승만은 북진 통일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4·19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기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국민들에게 부탁하였다. 이토록 투철한 이승만의 반공이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승만을 오랜 기간 연구한 유영익은 이승만이 청년시절부터 꾸준

히 러시아에 대해 경계의식 내지 반감—즉, 공포(恐懼)·혐아(嫌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맥락에서 그는 행방 후에 반공주의를 내세웠다고 분석하였다.¹⁾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여기에서 나아가 이승만이 왜 반러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또 이것은 어떻게 반공노선으로 전환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이승만의 반공노선의 분석 기준으로 삼을 현실주의는 주로 투키티데스(Thucydides), 마키아벨리(Machiavelli), 홉스(Hobbes),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모겐소(Morgenthau)로 대표되는 전통적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를 의미한다. 힘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고 이 갈등은 궁극적으로 전쟁에 의해 해결된다고 믿으며, 국가안보와 생존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둔다. 또한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힘의 불균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간주한다.²⁾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이승만의 반공노선이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승만의 비관적 시각, 그리고 러시아 및 다른 열강의 세력균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승만의 반공노선을 국제관계는 물론 국내정치에서의 힘의 대립 또는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

1)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서울: 중앙일보사, 1996), p.221.

2) 이런 입장은 모든 타자들(outsiders)은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이는 인간의 소유욕과 팽창욕에 기인하며, 홉스에게는 부정부적 구조가 이런 위협의 원인이다. David L. Rousseau,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7-19.

2. 청년기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반러 의식

이승만은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서양 교육 및 사상과 접하였다. 특히 1986년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조직한 협성회 토론회를 통해 대중연설가로서의 훈련을 쌓는 한편, 개화 의식 및 사회참여 의식을 높였다. 협성회의 정기토론회에서는 계몽적인 주제부터, 정치체제 개혁과 외세 배격에 이르는 문제들이 다루어졌다.³⁾

배재학당 졸업 후 이승만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승만은 1898년 3월 10일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의 연사로 나섬으로써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이양한 이권의 취소, 러시아 고문관 파면, 한러은행 해체 등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이승만 또한 러시아 세력의 철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이 모임의 총대위원으로 선출되어 만민공동회의 결의서를 외부대신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효과가 있어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서의 이권 획득 정책을 중단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은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반러운동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⁴⁾

1899년 1월 이승만은 박영효 쿠데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어 6년여 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많은 양의 독서와 사색 그리고 글쓰기를 하였으며, 이는 이승만이 근대 서양문물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독자적 사유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3)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5), p.71

4) 이정식,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서울: 동아일보사, 2002), p.54; 정병준(2005), pp.72-73.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이승만의 반러 의식이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는 이승만이 현실주의적 국제관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만일 저 많은 사람에게 규율 없이 내어 맡겨 들짐승의 무리 같이 제 풀대로 뛰어다니며 제 힘대로 얻어먹게 만들었을진데 큰 고기는 중 고기를 삼키고 중 고기는 작은 고기를 삼키며 서로 잡혀 먹히기에 하루도 편히 살 사람이 없을지라”고 강조하였다.⁵⁾ 즉, 이승만은 흡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에게 당시 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하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기록을 모은 『옥중잡기』에는 ‘러시아 피터대제의 유언’이 실려 있다. 러시아의 대외 팽창정책 전략이 담겨 있는 이 글은 이승만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혐로(嫌露) 내지 공포(恐露)사상(Russophobia)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⁶⁾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03년 2월 「제국신문」에 쓴 논설에서 러시아는 “탐욕 있는 호랑이”라 칭하며, “세계를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본다”고 강조하고, “피요트르 황제(피터대제) 이후로 천하를 통합할 주의로 유명을 끼쳤으며 대대로 이 유명을 지켜 남의 토지도 많이 침탈”하였다고 비난하였다.⁷⁾

『독립정신』에는 이승만의 반러 감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5) 이승만, 『독립정신』(서울: 정동출판사, 1993), p.145-46.

6) 유영익, “이승만의 〈옥중잡기〉 백미”,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p.48-53.

7) 「제국신문」 1903. 2. 18, 『몽치면 살고... 1989~1944 언론인 이승만의 글 모음』(서울: 조선일보사, 1995), p.408.

있다. “세 가지 정치구별”이라는 글에서 이승만은 러시아를 “태고시대에 인심이 양순하고 풍속이 순후할 때에 무위이치(無爲而治)하던 전제정치를 아직도 펴고 있는 나라”로 묘사함으로써 러시아를 청국과 함께 후진한 국가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갑오 을미 후 일·러시아”라는 글에서는 “자래로 러시아 사람의 정치주의가 전혀 남의 토지를 빼앗기로 위주하며 흑기회를 타서 계책을 부리거나, 흑 은혜를 베풀어 국권 잡은 이를 장악에 넣거나, 흑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려 한 조각 땅이라도 저의 세력에 넣으면 영원히 제 것을 만들어 장차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강조하였다.⁸⁾

이와 같이 러시아를 ‘탐욕스러운 호랑이’로 묘사하며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경계한 이승만의 인식은 사악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국제정치는 악(evil)으로 점철된다는 전통적 현실주의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⁹⁾ 당시 국제정세를 약육강식의 관계로 파악하는 이승만의 인식은 러시아의 대 한반도 침략야욕에 대한 입장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독립정신』에 들어 있는 “러시아 정치 내력”이라는 글에서 이승만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¹⁰⁾

[.....]러시아인이 감회 서쪽으로 다시 엿보지 못하고 범 같이 탐하는 눈을 동으로 돌이키니 밤중 같은 천지에 허다한 생고기가 무수히 널렸는지라. 1882년 시베리아 철도를 시작하여 14년을 작정하고 1만 8천리 가량을 통하여 나오니 이는 그 서울에서 군사를 파송하여 아세아주 동방 끝에 나오기를 지척같이 하고자 함이라. 해삼위로 지점을 삼으니 곧 대한 북도와 청국 동편

8) 이승만(1993), pp.75-76, 143-144.

9) Spritas, M. “A House Divided: Tragedy and Evil in Realist Theory”, *Security Studies*, Vol.5, No.3(1996), pp.387-400.

10) 이승만 (1993), pp.194-195.

에 연결한 곳이다. 이 지방에 달하여 동양천지를 임의로 호령하고자 함이라. 서양에서 막은 물이 동야에 미쳐오는지라. 그 위급 절박함이 실로 조석에 달렸도다.

러시아가 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를 침략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 글에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으로 서쪽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러시아가 동쪽으로 팽창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질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¹¹⁾ 아울러 이승만은 “러시아가 청국을 향하여 호령만 크게 하여도 청국이 두려워하여 대한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니 아낄 것이 없다 하여 제 것처럼 허락하고 저만 화를 면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²⁾ 이승만은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 구도에서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승만은 을미사변 이후 한국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일 양국의 세력 각축을 이리와 호랑이의 싸움에 비유하며,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였다.¹³⁾

이와 같이 이승만이 현실주의 시각에서 당시의 상황을 세력균형의 정치로 이해하며 러시아의 팽창을 경계한 만큼, 이승만은 러시아의 위협

11)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다른 글에서도 유럽은 서로 협력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여 러시아가 서쪽으로는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였으나, “한·청양국은 아주 모르고 앉아 점점 번어 들어오는 화근을 방비하지 아니한즉 그 형세가 심히 위태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승만(1993), pp.145-146.

12) *Ibid.*, p.146

13) 「제국신문」 1903. 2. 21., 고정휴,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 『역사학보』 제109집(1986), p.52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또한 『독립정신』에서 영·일동맹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이것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러·일전쟁의 “근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1993), pp.204-205.

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 협력하거나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러시아 혹은 다른 열강의 침탈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런 인식은 미국 유학을 거치며 더욱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임시정부 활동과 반공이념의 형성

이승만의 반러 감정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하고 공산 정부가 들어서자 반공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그는 공산주의를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 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라고 간주하고 이 이념을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했다.¹⁴⁾ 또한 소련과 연대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한국을 노예국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직 미국의 “성의 있는 원조”에 기대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이와 같은 이승만의 태도는 그의 임시정부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미·반일·반소에 입각한 이승만의 외교론은 강대국의 힘에는 강대국의 힘으로 밖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즉, 이승만의 외교론은 우리의 독립은 한민족의 실력이나 무장투쟁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익의 최대화를 노리는 강대국 간의 권력투쟁과 이해절충의 필요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은 독립

14) 리인수, 『대한민국의 건국』(서울: 도서출판 촛불, 1988), p.131, 유영익(1996), pp.221-222에서 재인용.

15) 정병준(2005), p.111에서 재인용.

에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한국 독립의 상실과 회복은 약소한 한민족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강대국 간 권력투쟁의 부산물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¹⁶⁾

이러한 이승만의 노선은 무력투쟁론 등을 주장하는 다른 지도자들의 노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던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1918년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던 이동휘는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후에도 연해주의 한인사회당 세력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상해의 인사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 보급하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군들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소규모 무장부대의 국내 진입은 오히려 국내동포들의 탄압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소련과의 협력은 조국을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만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등의 논리로 이동휘의 노선에 반대하였다.¹⁷⁾

그러나 이승만이 소련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20년대 후반, 자신은 혁명·폭력·공산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소련 및 약소국과의 연관이 “폼사의 유일한 대외운동”이므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즉 이승만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반소·반공 입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했지만, 자금 획득과 외교 지원 등의 필요에 따라서는 소련과 일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은 1920년 입정 승인을 위한 소련과의 외교 접촉

을 시도했다. 또한 1933년에는 시베리아 한인 및 소련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련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요구로 소련이 이승만을 추방함으로써 대소외교는 실패하였다.¹⁸⁾ 이승만이 이와 같이 반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연대를 꾀한 것은 당시 당면과제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련의 힘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실리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919년의 파리강화회담과 1922년 워싱턴회의에서 이승만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자, 차선책으로 소련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1933년 소련 방문을 통해 소련 국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더욱이 소련으로부터 모욕적인 추방을 당하자 반소·반공 노선을 보다 확고히 굳혔으며, 더 이상 소련과의 연대를 앓았다.¹⁹⁾

이승만은 워싱턴 회의가 끝난 후 상해임정이나 구미위원부의 유지보다는 하와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와 교회, 그리고 동지회의 사업 확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39년 4월, 17년 만에 다시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 활동을 재개했다.²⁰⁾

우선 이승만은 미국에게 일본 위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오래지 않아 일본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승만은 일본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한국의 운명은 자유세계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으며, 세계의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일본

16) 이호재,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개항 후 100년의 외교논쟁과 반성』(서울: 법문사, 1994), p.175.

17) 임병직, 『임병직 회고록』, pp.169-170,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189에서 재인용.

18) 이승만의 대소외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병준(2005), pp.112-115 참조.

19) 유영익(1996), p.222; 정병준(2005), p.115.

20)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241.

을 무찌를 때, 태평양에 평화가 다시 이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¹⁾ 이승만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를 침탈한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팽창함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측한 것이다.

한편 이승만은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서 *Japan Inside Out*이란 책을 쓰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와 함께 전체주의로 분류하며, 이들은 과거 세계의 무법자들과 연계하여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Japan Inside Out*에서 이승만이 예고한 미·일 간의 전쟁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워싱턴 일각에서 예언자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스스로 예언자적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었다.²³⁾ 이러한 자부심은 이후 이승만이 강력한 반소·반공 정책을 자신감 있게 펼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임정이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며, 나아가 전후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21)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pp. 199, 202. 이승만은 이미 1908년부터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오, 칼”이라며 미일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共立新報」 1908. 12. 16, 고정휴(2004), p. 432에서 재인용.

22) Rhee(1941), pp. 188-189.

23) 유영익(1996), p. 190.

다른 한편 당시 이승만은 독일의 소련 침공과 일본의 미국 공격으로 미·영·소 간의 대동맹이 형성되자 전쟁 이후 소련이 다시 아시아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입장은 미국 관리들과의 면담 또는 그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42년 1월 미 국무장관 특별보좌관 알저 히스(Alger Hiss)에게 소련은 시베리아를 통한 무역을 위해 한국의 부동항을 장악하려고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노력했으며, 미국이 한국 독립을 미리 승인하여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소련은 일본 패망 후에 반드시 한반도로 들어와 한국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⁴⁾

미국 정부가 임시정부 승인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이승만은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1942년 12월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련의 팽창 야욕을 경고하며,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는 공산국가가 설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3년 3월 이튼 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신탁통치안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자 이승만은 이에 격분하여 5월 15일,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은 1905년 일본의 한국 병탄을 허락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이나 고초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소련의 야욕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소련이 ‘소비에트 조선공화국(the Soviet Republic

24)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Seoul: Panmun Book, 1978), p. 8.

25)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1955), pp. 196-198.

of Korea)’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만은 40년 전 미국이 우려하던 극동에서 소련의 팽창 위협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만일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자체가 ‘장차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⁶⁾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승만이 1941년 일본을 미리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그대로 소련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미·영·소 정상이 합의하자, 이것이 한국의 독립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으며, 이 또한 소련의 음모라고 생각하였다. 이승만은 카이로회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나는 스탈린이 비록 카이로회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종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카이로선언은 고의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문제를 추후 결정사항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한국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독립적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소련 지배하의 정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²⁷⁾

26)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표기)*, 1949, Vol.3, p.1093, May 15, 1943.

27) Oliver(1955), pp.196-198.

1945년에 들어와 미국의 임정 불인정 방침이 계속되고 특히 미국이 임정 내부의 분열을 문제 삼으며,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한길수 등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자 이승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이 소련과의 협조를 우선시한 나머지 한국인에게 무분별한 좌우합작을 강요하는 경우 전후 한국에는 폴란드의 루블린(Lublin)정권과 비슷한 친소 괴뢰정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승만은 친소정권이 세워질 경우, “한반도에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에 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⁸⁾ 이승만은 또한 해방 직후인 8월 27일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우리는 공동점령이나, 신탁에 반대한다[……] 왜 우리가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한국에서 유혈내전의 씨앗을 뿌리도록 허락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였다.²⁹⁾

위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에 대한 임시정부 승인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반소의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승만이 이념적 측면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소련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과거부터 한반도 지배를 모색해 온 러시아가 다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채택한 이상 소련의 지배는 곧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게 만일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28) 유영익(1996), p.202.

29) 차상철, “이승만과 하지(John Reed Hodge): 건원의 동반자”,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373에서 재인용.

이는 결국 한반도의 공산국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미국과 소련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경쟁하는 두개의 힘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과 매우 흡사한 논리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승만은 국내정치에서의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도 소련 공산주의의 유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한국 독립운동이 소련의 원조와 협력으로 성공할 경우, 한반도가 공산화되고 소련 세력권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친소 노선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소련경계론’을 확신해 온 이승만 등 우파는 독립은 좋지만, 그것이 소련 주도의 공산정권 수립을 의미한다면 받아들일 수 어려웠을 것이다.³⁰⁾

4. 해방 이후 반공이념의 강화와 단정론

1945년 10월 16일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이승만은 자신의 귀국 제일성에서 “모든 정당과 당파를 협동하여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을 찾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역설하였다.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회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이 기관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승만은 귀국 이전 반소에 기반한 반공의식을

30)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호재, “전후 한미관계의 재조명”,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서울: 동아일보사, 1987), pp.89-90 참조.

강하게 표출하며, 좌·우합작은 한반도의 내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런데 귀국 초기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는 1945년 10월 21일 한 연설에서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면서 그들을 포섭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³¹⁾ 이어서 그는 11월 21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관념”이라는 제목의 방송연설에서 “악독한 외적의 압박하에서 지하공작으로 백절불굴하고 배일 항전하던 공산당원들을 나는 공산당원으로 보지 않고 애국자로 인정한다. 왜적이 침략한 후에 각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 사육이나 불의의 생각이 아닌 줄로 믿는다”라고 언급하였다. 단, 그는 공산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경제방면으로 근로 대중에게 복리를 줄 것이니 이것을 채용하지는 목적으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인사들”에게는 얼마만큼 찬성하지만, “경제정책의 이해는 어찌되던지 공산 정부만 수립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 각 방면으로 선동하는 중에서 분쟁이 생겨 국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들”과는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³²⁾

이승만이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일부에 대해서나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공산당을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끌어들이 이 기관을 명실상부한 통합조직으로 만들으로써 통합 지도자로서 자신의 국내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승만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하기 이전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조직을 완비함으로써 임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형

31) 우남실록편찬회 편, 『우남실록』(서울: 열화당, 1976), pp.314-315.

32) *Ibid.*, pp.121, 340

식을 택하려 하였다.³³⁾ 또한 처음부터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배척할 경우, 분열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³⁴⁾

공산당에 대한 위의 두 연설이 시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승만의 반공의식이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공산주의의 권력장악을 경계하는 권력투쟁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승만은 위의 연설에서 폴란드 및 유럽에서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반러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소련의 사주에 의해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승만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유화적 입장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좌·우익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공산당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을 깨달은 이승만은 1945년 12월 17일에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방송연설에서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한다며 반공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승만은 이 연설에서도 아래와 같이 소련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기왕에도 재삼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오, 공산당 극좌파들의 파괴주의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 우리 대한으로 말하면 원래에 공산주의를 이는 동포가 내지에는 불과 몇 명이 못 되었다니 공산 문제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 그 중에 공산당으로 지목받는 동

33) 정병준(2005), p.488.

34) 사실 이승만은 당시 자신의 측근인 Rober Oliver에게 보낸 기밀서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 중경 임시정부 요인들을 귀국시키려 한다”며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을 이미 표출하였다. Oliver(1978), p.19.

포들은 실로 독립을 위하는 애국자들이요, 공산주의를 위하여 나라는 파괴하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 불행히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 나라와 동족을 팔아다가 사익과 영광을 위하여 [……]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해서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자들이 로국(露國)을 저의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의 조국에 들어가서 저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습니다.³⁵⁾

1945년 12월 말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반 논쟁을 계기로 좌·우익 간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이승만의 반공의식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은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탁치론은 “영원히 우리 반도와 국민을 팔아먹으려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나아가 이승만은 “병든 가지는 쳐버려야 한다”고 외치며 공산당의 본 의도는 “소련의 위성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³⁶⁾

아울러 이승만은 공산주의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협력하지 않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이는 곧 “내 집에 불 놓은 자와 함께 일하라는 말과 같으니 될 수 없는 일이므로 불 놓은 사람이 주의(主義)를 그치기 전에는 합동될 수 없으며 그들이 그 주의를 고집할 동안에는 평안히 살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³⁷⁾

이와 같이 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이승만은 결국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은 1946년

35) 우남실록편찬회(1976), pp.350-351.

36) *Ibid.*, pp.140-141.

37) *Ibid.*, p.387.

6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³⁸⁾ 이어 1946년 12월 워싱턴을 방문, 미 국무부에 단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승만은 ①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남한에 과도정부를 설치하고, ② 소련을 북한으로부터 몰아내고, ③ 과도정부의 유엔 가입을 허용하며, ④ 한반도에서 소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³⁹⁾

왜 이승만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제기했을까? 우선 이승만의 권력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위치는 사실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고, 특히 그를 지지해주는 직접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 자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승만이 단정론을 내세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국무성 등 일부 관리에 의하여 남한 단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간파했던 이승만은, 그 자신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을 것이다.⁴⁰⁾

그러나 당시 대내외 정세와 이승만의 일관된 반소·반공의식을 고려

38) *Ibid.*, p.401.

39) *FRUS, 1946, Vol. VIII I: The Far East*, pp.775-778, undated; Oliver(1978), pp.53-56

40) 진덕규,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서울: 동아일보사, 1987), p.172; 정병준(2005), pp.563-576.

할 때, 단정론을 국내정치적 권력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1946년 5월 경 미·소간 냉전의 기운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년 2월 스탈린은 자본주의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소련을 연합국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적으로 보며 봉쇄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⁴¹⁾ 그리고 3월 영국의 처칠 수상은 소련이 유럽에 “철의 장막”을 쳤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1946년 초 38선 이북에서는 조만식 등 우익이 제거되었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등 소련의 주도로 소비에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냉전이 가속화되고 소련의 통치하에서 북한의 공산화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통일국가 설립은 너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이었을 것이다. 즉, 반소·반공의식에 기초하여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를 우려해 온 이승만은 남한에 민주주의 정부가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투와 이를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단정론은 적어도 남한에서만이라도 독립과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었을 것이다.⁴²⁾

1947년 3월 트루먼독트린 발표로 냉전이 공식화되었고, 8월 제2차

41) 이 당시 냉전과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42)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정식,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단독정부론의 등장과 전개”,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p.34-49; 차상철(2000), p.400; 진덕규(1987), p.173 등 참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이승만의 단정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으며, 미국도 단정 수립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남한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5.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북진통일론⁴³⁾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 일제히 회심개과(悔心改過)해서 우리와 같이 보조를 취하여 하루 바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하자고 언급하였다.⁴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이를 거부하고 계속 “러시아의 괴뢰”로 행동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진전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해방정국을 통하여 분단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승만 자신이 공산주의를 “큰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들과의 협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⁴⁵⁾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공산당에 의해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는다는 ‘실지회복론’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가 본질적으로 고려한 통일 방안은 ‘북진 통일’이었다. 이승만은 1949년 2월 미 육군장관 로알

(Kenneth Royall)과의 대화에서 “육군을 무장시켜 빠른 시일 내에 북진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유엔이 남한 정부를 승인함에 따라 한반도의 모든 영토를 관할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기다려 봐야 얻을게 없다”고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한 몸뚱이가 양단된 셈”이고, 분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전투는 우리가 행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공산주의에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⁴⁶⁾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이 북진 통일의 목소리를 높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였다. 우선 대내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의 통합을 고취하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 또한 대미관계 측면에서 북진 통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남북 충돌을 격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원조를 받아내려 하였다.⁴⁷⁾

이와 함께 이승만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자 이 사태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한국이 “또 다른 중국”이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⁴⁸⁾ 또한 남한 내에서의 게릴라전과 38선에서의 국경분쟁이 심화되자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가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예방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⁴⁹⁾ 그러나 이승만은 이를 실천에 옮길 군사력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에게 무기 원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43) 이승만의 북진 통일에 대한 논의는 홍용표, “전쟁 전개과정에서의 한·미 간의 갈등”, 한국전쟁 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44)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1집, p.3.

45) *Ibid.*, p.16.

46) *Ibid.*, p.24.

4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pp.611-612.

48) Oliver(1978), p.220.

49) *Ibid.*, pp.250-253.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의 복침 감행을 우려하며,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인들(과거에 내가 그 위험성을 지적했던)이 여기에 있다. 누가 그들을 물리칠 것인가?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러시아인들을 북한에서부터 쫓아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질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지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최근 비밀보고들은 추수가 시작되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이) 항공기는 물론 기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한으로 쳐내려 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⁵⁰⁾

국제정치에서 '위협'은 상대국가의 군사력(military power), 공격능력(offensive capability),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 그리고 공격적 성향(aggressive intentions) 등 4개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⁵¹⁾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 러시아는 충분한 군사력과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을 소비에트화 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매우 접근해 있고,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던 공격적 성향이 강한, 따라서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국가였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반러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지배욕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 곧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50) *Ibid.*, pp.259-260.

51)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22.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했던 대로 1950년 6월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이승만은 이를 당연히 소련의 사주에 의한 전쟁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 대통령은 “소련이 군기, 군물을 주어서 침략군들을 들어오게 하였으니” 이 전쟁은 “한국과 아라사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⁵²⁾ 아울러 이승만은 소련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크레mlin 독재자의 지배하에 넣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⁵³⁾

한편 이승만은 비록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제공격을 당했으나,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주도하에 통일을 달성하려 했다. 특히 미군 및 유엔군이 참전하자 이들의 힘을 빌어 그가 원하던 북진 통일을 완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은 북의 남침으로 인하여 38선이 무의미해졌음을 선언하였으며, 7월 19일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현상유지정책은 적에게 재공격의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제 암적 존재인 공산주의를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⁵⁴⁾

중국의 참전으로 유엔군과 공산군이 38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점차 확전보다는 휴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휴전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소련이 휴전안을 제안하자, “소련의 지도자들이 무력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양면외교를 통해 달성코자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분단 상태에서의 정전은 한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⁵⁾

52)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1집, p.39.

53) *Ibid.*, p.59.

54) *FRUS, 1950, Vol. VIII: Korea*, p.373, July 13, 1950; pp.428-430, July 19, 1950.

이승만은 전쟁 이전에 이미 소련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 전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곧 남쪽으로 쳐들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반공에 대한 이승만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사실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더욱 자신 있게 북진 통일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승만의 휴전 반대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남아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의 꿈이 좌절되자 이승만의 적대감 대상에 중국도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1952년 3월 이승만은 중공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 국가로 생존을 위하여 단독으로라도 계속하여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이 휴전에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지속적으로 외친 것은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보다 많은 안보공약을 확보하려는 협상용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국내정치적으로도 이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고문인 올리버(Robert Oliver)에게 자신이 단독 북진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은 “진심”이

55)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1집, p.285.

라고 실토한 바 있다.⁵⁶⁾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휴전 이후에도 북진통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승만은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을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한국 전선에서 이 순간 총성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치 못한 휴전협정 때문에 잠시 멈춰 있을 뿐이며, 적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네바회담이 예상했던 대로 아무 결과 없이 결렬되었으니, 휴전의 폐기를 선언할 때입니다.[……]수년 안에 소련은 미국을 궤멸시킬 수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극동지역입니다.[……] 한국 전선은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전쟁 즉, 아시아를 위한 전쟁, 세계를 위한 전쟁, 지구상의 자유를 위한 전쟁 중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⁵⁷⁾

이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주장은 많이 약화되었다.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의 병력만으로는 공산군을 물리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미국 방문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을 도와 북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야만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린 것은 아니다. 이승만 자신의 말을 빌리면, 통일의 실현은 “일생의 목표”이며 그가

56) Letter from Rhee to Oliver, May 19, 1953, the Oliver File.

57) ROK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President Syngman Rhee's Journey to America*(Seoul: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1955), pp.15-22.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승만은 “나는 휴전에 대한 내 마음을 전하려 미국에 왔으며, 나의 방식대로 이를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말하였다. Oliver(1978), pp.446-447.

북진 통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원치 않는 “국제적 조류” 때문이었다.⁵⁸⁾ 따라서 이 대통령은 1955년경부터는 무력통일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동·서 진영 간의 평화공존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며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그러한 위장 평화 공세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승만은 또한 평화공존이란 공산주의자들을 격퇴시키고 북한을 해방시킨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⁵⁹⁾ 결국 이승만의 평화공존론에 대한 비판은 반공이념에 기초한 북진통일론의 우회적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6. 나오는 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할 것, 어떤 일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할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것,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 앞서 먼저 행동할 것.⁶⁰⁾

58) ROK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Korea Flaming High: Excerpts from Statements by President Syngman Rhee*, Vol. II, p.183; RG 59, 795.00/5-2655, May 26, 1955, NA.

59)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2집, pp.72-77, pp.77-82; From Rhee to Oliver, January 18, 1955, the Oliver File.

60) Robert Jackson and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17.

반러 및 반공노선과 관련된 이승만의 언행은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행동강령에 잘 들어맞는다. 일본과 서구열강이 한반도에서 쟁탈전을 벌이던 19세기 말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승만은 적자생존의 원칙이 냉혹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국제정치가 강대국의 이익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투쟁임을 깨닫게 되었다.⁶¹⁾ 특히 이관파천 등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1898년 독립협회의 반러운동에 가담한 이승만은 조선의 국익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반러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은 많은 독서와 학습을 통해 당시 국제정세를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남들보다 앞서 한반도의 문제를 예측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행동의 기저에는 힘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러시아를 약육강식 세계의 ‘탐욕스러운 호랑이’로 인식해 온 이승만은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소련이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소련이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까지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해방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반공노선을 점차 강화하였다. 이는 소련의 야욕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정치적 권력투쟁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은 누구보다 앞서 반공주의를 내세웠고, 내전의 위험성까지 경고하며, 단정론을 주장하였다.

분단 이후 북한 공산주의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북진통일론을 외쳤던 이승만은 자신이 예측했던 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

61) 이는 이승만 뿐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다른 정치지도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호재(1994), p.6 참조.

오키자 기존의 반공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혔으며,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I told you so)’라는 입장에서 반공정책을 강화하였고, 그의 반공노선은 권력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해석하며 생성된 이승만의 반러·반공 정책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개인의 권력 투쟁을 위해 반러·반공노선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과도한 반공정책은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조봉암 사형 등에서 보이듯이 자유당의 억압통치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⁶²⁾

1959년 이승만을 면담한 한 미국의 철학자는 이승만이 사고의 동맹 경화증에 걸려 석화(石化, petrified)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승만의 반공이념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진화해 온 이승만의 반공이념도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며 결국은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6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ng-Pyo Hong,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1960*(London: Macmillan, 2000), Ch.6, 7 참조.

An Analysis on Syngman Rhee's Anti-Communist Line from Realist Perspective

Hong, Yong-Py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Syngman Rhee's anti-communist line from the traditional realist perspective. The way that his anti-Russian sentiment had been formed and transformed to anti-Japanese sentiment and then anti-Communist line would be traced for this purpose. His anti-Russian sentiments had been formed to secure Korea against the Russian Expansionism, which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realist viewpoint to perceive the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 weak-to-the-wall kind of society.' The same is true to his diplomatic position to understand the independence of Korea would be a by-product of power struggle among the strong. As Chosun had been occupied in 1910, Rhee adopted a pro-American and anti-Japanese platform with regard to the balance of power. It led him to the anti-Communist line during the recognition movement of Chosun interim government and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He also supported the division of Korea to keep the Soviet Communism from South Korea, which can be seen as the realist consideration. Likewise, his unification scheme to cross the North was devised on this stance, with intent to collect the political base of support domestically and intensify the alliance with the US internationally.

Keywords: Syngman Rhee, the anti-Communist line, the anti-Russian sentiment, Realism